

# 당 지도부 통합논의 독점구도 '제동'

## 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 17명 오찬간담회

### "17일 전당대회 의총 등 의견수렴 과정 거쳐야"

야권 통합 방식 문제를 놓고 민주당 내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도부의 통합 논의 독점 구도에 제동을 걸고 나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민주당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17명은 여의도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손학규 대표가 밝힌 다음달 17일 통합 전당대회 개최 방안과 관련, 지도부가 공식적인 통합수입기구를 구성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들은 민주당 지도부가 통합 전당대회의 절차와 과정, 방법 등에 대해 의원총회 등 당내 공식 기구에서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실히 하고 조속히 당원들에게 알릴 것을 촉구했다.

이는 사실상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지도부의 통합 논의 독점 구도에 대해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돼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도부가 통합 추진의 과정과 방법을 민주당의 당헌·당규상의 근거와 권한에 기초해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는 민주당 중심의 통합 전대가 이뤄져야 하며 통합 전대가 당헌 당규상 어렵다면 민주당 단독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의원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가 다음달 17일로 통합전당대회 일정을 밝힌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일로 생각한다"며 "통합

절차와 방법은 민주당 중심으로 정통성과 정체성이 유지되면서 국민적 공감과 명분의 토대 위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지도부가 통합을 추진하면서 의원총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또한, 지도부가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도 모아졌다"고 말했다.

특히, 최 의원은 "통합을 하더라도

제3지대 신당 창당 형식은 안 된다는 의견도 상당했다"며 "이 같은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하는 한편, 이러한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지역 국회의원들의 회동 등을 통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권 도전에 나서고 있는 박지원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중심의 통합 ▲통합 추진에 있어 당내 의견수렴 과정 강화 ▲통합 추진시 당헌·당

규 준수 요구 등의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전체 회동을 통해 목소리를 높임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의 통합 전대 추진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통합 논의의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의 행보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도부를 압박함에 따라 통합 논의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조영택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 통합 파트너들 눈치 속 당 내부서도 이견 민주 '원샷통합전대' 험로 예고

민주당이 다음달 17일 '원샷 통합 전당대회'를 제안했지만 통합의 파트너들은 물론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속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손학규 대표는 오는 13일 통합 대상이 최대한 참여하는 연석회의 출범을 목표로 제 세력권 접촉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당 안팎의 사정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당내에서는 민주당의 전대를 준비해 온 당권주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 않는다.

박지원 의원은 10일 "통합 협상이 잘못된 경우를 대비해 통합전대와 민주당 전대를 동시에 준비하는 '투 트랙'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며 "현 지도부만이 통합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의원은 "법적으로 정당의 통합과 해산에 관한 결정은 전당대회만이 가진 권한"이라며 "민주당은 독자적인

전대 개최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독자전대를 추진하는 원내와 인사들의 모임인 '임시전당대회 추진위원회'는 지난 9일 모임을 갖고 민주당 전대를 요구하기 위한 서명 작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친노(親盧)인사와 시민사회 세력으로 구성된 '혁신과 통합'은 대통령 논의를 위한 연석회의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원 샷 통합전대'에는 소극적인 자세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민주당에 흡수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진보 정당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당초 내세웠던 야권대통합의 명분 훼손이 불가피한데다 지난 나누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혁신과 통합' 측이 통합 전대에서 민주당 당권주자들과 경쟁해 지도부에 입성할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혁신과 통합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제시한 원-샷 통합은 오히려 범야권의 통합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며 "이상과 현실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보다 과감한 기득권 양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진보 정당들의 입장도 제각각이다. 우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통합보다는 연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연석회의 참여 자체를 꺼리고 있다.

반면, 국민참여당과 진보신당 탈당파는 야권통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국민참여당은 연석회의 참여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통합 방식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과연 민주당이 원 샷 통합 전대를 때개로 야권 통합을 이끌어 나갈지 미지수"라며 "우선 연석회의 출범이 전체적인 통합 흐름을 좌우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한나라 쇄신과 3인방 당직 줄사퇴

## 정두언·김성식·정태근 의원 "이대통령·당지도부 안일 대처 답답"

정두언·김성식·정태근 의원 등 한나라당 쇄신과 3인방이 9일 당직을 줄사퇴했다.

여의도연구소장·정책위 부의장 등 당내 요직을 장악해온 이들의 사퇴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에 대한 국정 기초 전환과 기득권 포기를 촉구하는 압박으로 해석돼 향후 '당내 쇄신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지난 9일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김성식, 정태근 의원은 당직 사

퇴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정무·기재·예결분야, 정 의원은 농림·지경·국토해양분야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다.

정두언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소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지난 6일 이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한다고 서명했던 25명에 포함돼 있다. 김성식 의원과 정태근 의원은 전면에 서명을 주도했다.

정두언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사과와 지도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뜻에서 여의도연구소장직을 사임하기로 했다"며 "변해야 하는데 너무 사태를 안일하게 보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역 초선인 권영진 의원도 지난 7일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직과 노원을 당협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 막걸리 마시면서 대화해 볼까요

## 장병완 의원 26일 '취중진담 토크쇼' 출판기념회

### 빛고을건강타운, 최종원 의원·가수 김창완 참석

민주당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이 '취중진담 토크쇼' 방식의 이색 출판기념회를 연다.

장 의원은 자서전 '장병완의 나라 살림 이야기' 출판기념회를 오는 26일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개최한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강당에 포장마차 무대를 만든 뒤 장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최종원 의원·가수 김창완 등 4명이

막걸리를 마시면서 자서전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자서전에는 지난 30년간 원직·군형·배려 등 신념을 가지고 임해 온 공직생활에 대한 이야기와 가족,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장 의원은 "참가자들이 나에게 대한 이야기를 재밌고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중 토크쇼 방식의 출판기념회를 마련했다"며 "이 책에 담긴 내용들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 '성희룡 발언' 강용석 의원 항소심도 유지

##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서울 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인규)는 10일 '대학생 성희룡 발언 파문'과 관련,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

서 강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증거를 종합하면 대학생을 상대로 한 발언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오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발언이)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사를 '허위 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강 의원은 선고 직후 굶은 표정으로 "드림 말씀이 없다"며 서둘러 자리를 물었다.

강 의원은 이날 상고 여부를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굶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연합뉴스

### 제16회 전국 스피치 가능 경시 및 유치부·어린이 응변 발표대회

- 일시 : 2011년 12월 18일(일요일) 오전 9시
- 장소 :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 강당 (상무지구)
- 주최 : 한국응변연설인중양회
- 주관 :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연설,리더십지도자과정)
- 후원 :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상의 종류	시 상 훈격	수여 인원	시 상 부문	부 상
전 체 대 상	국회의장상	1명	전체 참가 연사중 가장 우수한 연사 1명	대형 은배 장한글
진 최 위 수 상	통일부장관상	2명	학생부(유치·초·중·고)와 대학일반부 중 가장 우수한 연사 각 1명씩	대형 은배 장한글
각 부 대 상	광주광역시장상 전라남도지사상	10명	유치부,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중·고등부, 대학일반부, 각 2명씩	대형 트로피 장한글
각 부 최 위 수 상	광주광역시교육감상 전라남도교육감상	12명	유치부4명,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중등부, 고등부 각 2명씩	중형 트로피 장한글
각 부 우수 상	광주광역시의회위원장상 전라남도의회위원장상	24명	유치부4명,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중·고등부, 대학일반부 각 4명씩	트로피 또는 시계 장한글
단 체 우 수 상	국회의료총장상 통일위원장상	3명	초등부1팀, 중·고등부1팀, 대학일반부1팀	우승기 장한글

■참석내용: 우리말 우리글 바로쓰기 및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 통일기반구축을 위한 내용으로 아래 소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제는 자유로 한다.  
 ● 우리말 우리글의 뿌리를 알고 바로쓰기 위한 방안  
 ● 그 외 유치부는 자유제 가능

■발표시간: 유치부 2분, 초등부 3분, 중·고등부 4분, 대학·일반부 5분  
 ■접수마감: 2011년 12월 13일(화요일) 17:00  
 ■접 수 처: 503-23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142-2 (2층) 한국응변연설인중양회  
 TEL. (062)385-7997, FAX.(062)528-1020, 010-5692-9998

■명예대회장: 남 경 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대 회 장: 김 종 열 (한국응변연설인중양회이사장, 고려인상제품공사 대표)  
 ■대회집행위원장: 한 상 백 (한국응변연설인중양회 회장)  
 ■심사위원: 대통령상상자 및 관계기관전문가, 언론인 등으로 구성 (추후발표)

## 발목펌프 운동

신개발 포인텍나무 경침 7점용 음성카운터 운동방안?

직경10cm 길이 30cm 높이 7.5cm 편백나무 반원에 경침(목 디스크 예방과 치료 등)과 발목펌프 운동을 겸용할 수 있고 소음 진동방지장치와 운동회수를 자동으로 알리는 음성카운터가 내장되어 있어 운동하기 아주 편리하며 취침 시는 경침으로 이용하며 평생 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효과가 탁월한 경침운동기구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일건강이 개발한 특허제품 뿐입니다.

★특허등록 제30-0465075 발목운동기구★

- ▶ 편백 경침 겸용 음성(아파트용) 75,000원
- ▶ 편백 경침 겸용 운동봉(아파트용) 55,000원
- ▶ 경침 겸용 운동봉(주책용) 30,000원

제일건강 문의전화: 010-7510-2000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256-1 농협: 601154-52-335334 서영점

### 가은 부동산

#### 상무지구 스타벅스빌딩매매(8층)

- 분양면적 : 450평
- 전용면적 : 300평
- 매매금액 : 13억원
- 모든 업종 가능

#### 상무지구 빌딩 매매

- 대 지 : 257평
- 연건평 : 900평
- 보증금 : 4억3천만원 /월2000만원
- 용자금 : 10억원
- 매매가 : 38억

#### 아파트 1층 상가 매매

- 분양면적 : 106평
- 보3억5천만원/월 650만
- 용5억포함
- 매매가 15억5천만원 (현, 마트 / 치과)

상무지구 랜덤피아 사거리 010-8289-8549

### 수원지구 상가 분양·임대 전문

학원·병원·한의원  
 고급식당·독서실·PC방  
 노래방·실내골프장  
 1층 근린생활  
 2층~7층 까지  
 20(평)~210(평) 까지  
 분양·임대가능  
 즉시입주,시비없음

★국민은행 2차 코너정문 (5,000세대)  
 ★신한은행 2차 모아엘가 정문아파트(5,000세대)  
 ★롯데마트 앞 대방5차 후문 (7,000세대)

신한공인중개사 ☎ 062)961-3377

### ★건축시공★ 해드립니다

원룸·상가·고시원  
 도시형생활주택전문

- 수익성 상가
- 안전한 재산증식
- 노후보장
- 퇴직자 환영

설계·기회부터 책임마감까지 원스톱으로 시공해드립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중 (전남대 정문 2분)

- ★1억에 5채
- ★1년간 임대수익보장
- ★취등록세 면제
- ★재산세·양도세 혜택
- ★항시 건축토지구획

(주)대신종합건설 ☎010-6670-9800

###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투, 매수선정대리업체(법인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 근린시설

- 북구 오치동 3층상가주택 대지58평 건평112평 김정기2억 6천만 최저가1억9800만
- 동구 동명동 조대원 4층고시원 대지66평 건평145평 김정기 4억9천만 최저가 3억9800만
- 서구 쌍촌동 3층다가구 대지70평 건평147평 김정기 4억2천만 최저가 2억9천만

#### 단독주택

- 광산구 윤남동주택 대지 223평 건평 28평 김정기 2억4천만 최저가 1억7천만

#### 근린주택

- 서구 농성동 3층상가주택 대지99평 건평155평 김정기 4억5천만 최저가 3억1천만

#### 상가매매

- 남구 월산동 4층상가주택 대지 34평 건평 76평 1층상가 2-3층다가구 4층안일(도시가스,리모델링) 매매가 2억5천만(조정가)

#### 토지매매

-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임야 1200평 진입로있음 관리지역(일부 전) 매매 평당3만5천(조정가능)
-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외기해수욕장앞 101평 계획권리 매매 평당20만원

광주 남구 월산동 구 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